

# “5월 금융 특별전, 불교미술 정수 선보일 것”

## 2018 주목! 이 사람

〈7〉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 김영희

공주 출생 담양 한빛고 졸업  
15년 넘게 미술사학 공부  
지난해 신안실 개설·서화실 개편  
“왕이 사랑한 보물전 맡으며  
전시기획·진행에 자신감”



충남 공주가 고향인 김영희 학예사에게 공주는 제2의 고향일 만큼 인연이 각별하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공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익숙한 곳이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담양의 한빛고로 진학을 했거든요. 집을 떠나 담양에서 혼자 살았지만 낯설거나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니다.”

김영희(36)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에게 공주는 제2의 고향이다. 고등학교 때 쉬는 날이면 자주 시내(금남로)로 놀러 오곤 했다. 주말이면 금남로는 학생과 젊은이들로 활기가 돌았지만 뉘가 무거움이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청 분수대 앞에서 개최된 5·18 20주년 행사가 참가했던 기억도 생생하다”는 김 학예사는 “생각할수록 광주와의 인연이 신기하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첫 발령지가 광주박물관이었다. 자연스레 고교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고 자신의 삶에서 공주가 때때로 떼어 수 없는 고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학원 석사과정 전공분야가 불교 미술이었습니다. 남도에는 유서 깊은 사찰도 많이 있고 불교 미술 또한 나름의 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연구했던 분야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학예사의 첫 인상은 모범생 이미지였다. 한마디로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반듯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소신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다소의 ‘까칠함’도 느껴질 만큼 열정이나 프로의식도 만만치 않았다.

김 학예사는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올해로 만 15년이 넘게 미술사학 관련 공부를 해왔다. 교수나 강사 등과 같은 직업 연구자도 진로의 한 분야지만, 박물관 관련 전문 일을 하는 것도 적잖은 보람이다.

“박물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제교류나 보고서 발간 업무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 발령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됐지요. 처음 했던 일이 상설 전시 ‘신안실’을 여는 일이었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짓뿐이었죠. 전공인 불교미술과도 동떨어진 분야여서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전시 업무를 맡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서화실 개편을 2회에 걸쳐 진행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지난 5월에는 새로 소장하게 된 서화 구입 유물 위주로, 호남 화단의 대표 화가인 소치 허련의 작품 등 9건 29점을 소개했다. 10월 개편에서는 가을과 겨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가을의 꽃, 새, 풍경 등의 주제로 나누어 10건 28점의 작품을 현재까지 전시하고 있다.

김 학예사는 또한 “진행중인 ‘왕이 사랑한 보물’ 전시회(4월 8일까지)를 개최하면서 전시 기획과 진행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며 “유물이 본래 전시되고 있는 드레스덴 레지덴츠공전의 전시실을 재현한 사진을 벽면에 설치한 연출기법이 볼거리를 높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학예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교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언제나 무언가를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진로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문화와 역사를 좋아해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미술사를 선택한 것은 고3 수능이 끝나고 어느 미술평론가의 책에 감명을 받고서였다. ‘그림을 글로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정을 한 후, 미술사와 관련된 공부와 일은 평생의 업이 되었다.

올해도 김 학예사는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5월 석가탄신일을 맞아 근대의 대표적인 금어(金魚·단청이나 불화를 그리는 일에 종사하는 승려), 금융 일섭(金容 日燮, 1900~1975)에 대한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다. “전공 분야이기도 해서 감회가 남다르다”는 그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근대기 사찰 불사의 면면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일섭 스님은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하고 김재 부용사를 거점으로 전국적인 작품활동을 펼쳤습니다. 근대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 불교미술을 연결하는 중요 인물이지요.”

특별전과 아울러 학술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초청해 금융 일섭의 작품 활동이 근대 불교미술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할 생각이다.

전시 기획, 학술대회 외에도 김 학예사는 학술 논문도 준비중이다. 금융 일섭 뿐 아니라 근대기 사찰 불사의 큰 사건인 1935년 김재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대학교병원 한희원 작가 초대전

내달  
4일까지  
CNUH  
갤러리



▶담양 삼산 정미소의 겨울

소복히 쌓인 눈길, 푸른 하늘에 아련히 박힌 별, 자정에 하얀 눈을 인 채 응기종기 모여앉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소박하고 따뜻한 겨울 풍경을 담은 작품들은 작가가 보내는 ‘겨울 편지’다.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가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 1동 CNUH갤러리에서 다음달 4일까지 초대전을 열고 있다. ‘겨울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눈 덮인 마을, 화사한 꽃, 나무 등을 담은 20여점을 선보인다.

갤러리 입구 전면을 차지한 대작 ‘눈 내리는 신창동’은 투박한 붓질 속에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창밖 토라한 겨울마을’, ‘담양 삼산 정미소의 겨울’ 등은 눈 어릴 적 시골마을 등 잊혀진 공간에 대한 추억을 소환한다.

또 빈센트 반고흐가 생을 마감한 오베르 쉬즈 우아르의 모습을 담은 ‘생의 일기’도 인상적이며 두터운 집감을 생생히 살린 ‘생의 꽃’ 시리즈에서

는 붉은꽃, 푸른꽃, 하얀꽃의 꿈틀대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조선대 미술과를 졸업한 한 작가는 지금까지 총 40여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일본·대만·미국·프랑스 등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 대동미술상, 원진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시 남구 곳모닝 앙리축제 조직위원장,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화행사 추진위원장, 한희원미술관장 등을 맡고 있다.

한 작가는 “새해 첫 전시회를 전남대병원서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전시된 작품을 통해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매달 유명 작가의 작품 전시회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인문지행 문화행사... 런던 내셔널갤러리 명작 감상

21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페리스의 사교’

세계미술관의 명작을 감상하는 인문지행 문화 예술기획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1월 행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4시까지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진행되며,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복판에 전시된 바로크에서부터 고전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한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감상하게 될 작품들은 카라바조의 걸작 ‘엠마오의 식사’, 17세기 유럽 미술계를 지배했던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 ‘삼손

과 데릴라’,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 등이다. 또 카라치의 ‘성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니콜라 푸생의 ‘바쿠스 제전’ 등도 만난다.

문화예술기획은 세계 미술관의 명작 감상을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좌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왕이 사랑한 보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김 학예사.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별기획 전라도  
2018년 1월호

**특집**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천년사업, 웅대한 막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무술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기획-광주올리 다시보기-프로그램  
문화자산만들기  
광주올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중호의 꿈의 여행③  
'축가사'가 나올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SLOVENIA

동네 책방이 빠진다-책방발굴⑥  
여행과 문화의 연동편  
'도시여행자'

**예향 초대석**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예요”

취재의 전서  
유형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도시 정체성에  
개성을 입다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문장이 쉬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③  
눈 부릅뜬 시 정신이 산다  
신동업 문학관

해양수산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계마을, 울진 평해읍 거길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남포마을

트렌드  
(따라잡기)  
‘위로 한 톨, 추억 한 톨’  
옛날만화 열풍

백국남의 대중문화 지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 시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5·18평론 ‘메이피플’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안병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전장 지남 순환 망  
화순 여행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평인의 마음  
- 맛있고 멋져서 소문난 화순두부